

보도 일시	2022. 6. 15.(수) 15:00	배포 일시	2022. 6. 15.(수) 09:30
담당 부서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천지현 (02-2110-1270)
		담당자	사무관 강민규 (02-2110-1264)

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논의 본격화

- 전문가·업계·시민단체 등으로 협의체 구성,
형식규제 완화 및 새로운 유형의 광고 도입방안 등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6월 15일(수)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하여 첫 논의를 시작한다.

협의체는 방송·광고·법률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에 7가지 유형*의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환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힌바 있다.

*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시보광고, 자막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아울러,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지원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 위원 명단. 끝.

붙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학 계 (2)	문 철 수	•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변 상 규	•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
방송사 유관 단체 (2)	조 성 동	• 방송협회 정책기획부장
	백 승 일	• 방송채널진흥협회 사무처장
광고주 단체 (1)	곽 혁	• 광고주협회 사무총장
방송광고판매대행사 (1)	이 화 성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영업2국장
법률 전문가 (2)	김 태 오	• 창원대 법학과 교수
	안 정 호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시민단체 (1)	정 지 연	•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 부 (1)	천 지 현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장
연구기관(간사) (1)	강 준 석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총 11명		